

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서는 바리사이들을 강하게 비판하시며 이르십니다. “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. 아벨의 피부터,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 간 즈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.” 여기서 언급된 인물 중 즈카르야는 열대기 하권 24장 20절에 언급되는 인물로 하느님의 백성을 저버리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비판하였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. 오늘 복음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“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즈카르야”에서 성소를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는 집적적으로는 한 가정의 ‘집’을 의미합니다. 실제로 열대기 하권에서도 즈카르야가 죽임을 당한 곳을 주님의 집 뜰이라 증언합니다.

집, 가정에서 피를 흘려 죽은 예언자 라는 맥락을 통해 볼 때, 우리는 주님께서 언급하신 또 다른 인물인 아벨도 새롭게 조명됩니다. 아벨 역시도, 물리적으로는 들판에서 죽임을 당하였지만, 실제 그의 죽음은 다름 아닌 같은 오이코스, 가정, 집의 형 카인으로 부터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오늘 주님의 말씀, “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. 아벨의 피부터,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 간 즈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.”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아벨이 예언자와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진 것에 대해 이해할 길이 열립니다.

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그리신 예언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그 어디보다 안전해야 했었던 곳인 오이코스, 가정, 집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지만, 거부당하고 배척당하여 피를 쏟은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과 땅이 그들의 피를 받아 무덤이 되어준 이들을 가리킵니다. 무덤은 오이코스, 가정에서 죽은 구성원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, 이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만들어줄 오이코스에게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아벨에서부터 즈카르야에 이르기까지의 예언자들은 그 어느곳 보다 안전해야 할 오이코스를 향해, 하느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라고 그들 삶으로 호소한 이들이었습니다.

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하면서, 자신의 모습을 마치 예언자와 같이 여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예언자는 단순히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의무를 강제하며 쓴소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. 오늘 복음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로 불릴 수 있는 그 모습은 오이코스, 집에서 큰 어른의 자리, 권력의 자리에 앉아 그것을 유지할 뿐, 그 집안을 거슬러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진정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언자적인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면,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낀다면, 그 예언의 무게는 어떤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, 그가 내려놓은 오이코스에서의 자리, 그 무게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당신의 오이코스인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내려 놓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 처럼 말입니다.

오이코스에게 버림받았지만, 세상과 땅이 그 피를 받아준 이들이 예언자이다.

예언자는